

서울경제

2016년 05월 31일 (화)
33A면 전국

경기농기원-국가농림기상센터 협약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가농림기상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상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농림기상센터는 식량·산림·물·질병 및 기상재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농림산업 대응체계 강화와 대국민 농림기상 정보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 서울대학교·농촌진흥청·기상청·산림청이 협력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립됐다. /윤종열기자

9.3 X 4.3 cm

중부일보

2016년 05월 31일 (화)
06면 경제

도농기원-국가농림기상센터, 농업기상 기술 개발 협약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상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30일 (재)국가농림기상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연구와 기술을 통합해 맞춤형 농업기상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농기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작목 변화 ▶농경지 한발 위험성 ▶병해충 발생 등의 예측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농림기상센터는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WISE, Weather Information Service Engine)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물사용 예측정보 서비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 서비스 ▶농림기상 고해상도 수치모델링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남춘기자
7.5 X 7.6 cm

경기일보

2016년 05월 31일 (화)
17면 인물

맞춤형 '농업기상 서비스' 개발 온힘

도농기원·국가농림기상센터 MOU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30일 (재)국가농림기상센터(센터장 박은우)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상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농림기상센터는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 농촌진흥청, 기상청, 산림청이 협력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립됐다. 차세대 도시농림융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 등 제공 농업 경쟁력·소득 증대 기여

합 스마트 기상서비스(WISE, Weather Information Service Engine)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물 사용 예측정보 서비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 서비스 ▲농림기상 고해상도 수치모델링 시스템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농기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작목변화 ▲농경지 한발 위험성 ▲병해충 발생 등의 예측 연구를 추진 중이다.

도농기원은 이번 협약으로 기상자료

를 분석해 농가가 유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상 서비스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맞춤형 농업기상 서비스는 2019년에 농업인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기후 스마트 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 구현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재욱 원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기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영농정보 서비스 제공이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에 특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고품질 농업기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11.2 X 14.7 cm

뜻밖의 재해 막을 농업기상도 개발 첫발

도농기원-국가농림기상센터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 협약
2019년에 인터넷·스마트폰 서비스... 농업경쟁력 향상 기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재)국가농림기상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상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농림기상센터는 식량, 산림, 물, 질병 및 기상재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농림산업 대응체계 강화와 대국민 농림기상 정보서비스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 서울대학교, 농촌진흥청, 기상청, 산림청이 협력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립됐다.

도농기원은 이번 협약으로 기상 자료를 분석해 농가가 유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상 서비스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농기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작목 변화 ▶농

경지 한발 위협성 ▶병해충 발생 등의 예측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농림기상센터는 차세대 도시농림융합스마트 기상 서비스(WISE:Weather Information Service Engine)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물 사용 예측정보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 서비스 ▶농림기상 고해상도 수치모델링 시스템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농업기상 서비스는 오는 2019년 농업인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기후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구현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욱 도농기원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기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영농정보 서비스 제공이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 증대에 특히 중요한 사점이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고품질 농업기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ailbo.co.kr
20.0 X 9.2 cm